

5·18 구술기록과 미세한 힘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획, 이정우 편집, 『광주, 여성』,
후마니타스, 2012

이영남(Lee, Young-nam)*

올 해는 5·18 광주민주화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코로나가 진정어
된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모여 5·18을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집
단의 힘으로 기념하겠지만, 과연 이번에는 그럴 수 있을까. 지금처럼 모이
는 것이 힘들어 광주에 갈 엄두조차 낼 수 없다면 더욱 기록을 통해
5·18을 만날 것이다. 아키비스트는 어떤 기록으로 5·18을 만날 수 있을
까. 꼭 그런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줄 알면서도 ‘광주, 여성’은 어떻
겠냐는 말을 조용히 건넨다.

이 책이 나온 지는 8년이 되었다. 2009년 봄 광주에서, 일단의 여성활
동가들이 구술생애사 수업을 들었다. 이들은 이듬해 광주전남지역으로 훌
어져 5·18을 만났던 여성들을 찾아다녔다. 당시 10대에서 50~60대까지,
여고생, 금남로 주변 시장의 상인, 전업주부, 직간접 관련자, 간호사 등 27
명이었다. 찾아간 사람은 찬찬히 물었고 마중을 나온 사람은 담담히 말했
다. 그 때 어디에서 어떻게 5·18을 만났는지, 그 사건을 어떻게 겪었는
지,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 대화를 나눈 후 그 중의 일부를 정리해 책으
로 펴냈다.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조교수(durtkrk@gmail.com).

27명의 여성들이 구술에 참여했지만 19명의 목소리만 책에 담길 수 있었다. 19명의 목소리에는 공통된 것이 있었다. “속에서 웅얼거린다. 속에는 말의 고통, 말하려는 고통이 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 더 거대한 것은 말하지 않으려는 고통이다.”(차학경). 말하지 않으면서도 말해야 하는 갈등이 각자의 마음 안에서 충돌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한편으로는 살아온 시간이 뒤를 든든히 받쳐주자, 한 사람씩 무대에 올라 자신의 정서와 언어로 말했다. 5·18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자신이 겪은 것을 찬찬히 말할 뿐이었다.

한 간호사는 병원에서 부상당해 실려온 사람들을 치료하며 겪었던 것을, 시장에서 식당을 하던 사람은 주먹밥을 나눠주며 겪었던 것을, 가두방송을 했던 사람은 트럭 위에서 거리에서 보았던 것과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당했던 것을, 도청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은 그 곳에서 겪은 것을, 성당에서 빈민이나 독거노인의 시신을 염해주던 봉사를 하던 사람은 전남대병원과 적십자병원에서 시신 수습을 하며 겪었던 일을. 한 사람이 말할 때마다 새로운 사건이 생겼다. 각각의 사건은 서로 차이가 있는 개별적 사건이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는 외면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것들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각계 전문가들의 좌담도 실려 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상처를 헤집어 놓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정확한 실체에 접근하는 것은 어쨌든 상처를 먼저 드러내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가 드러나야만 치유가 될 수 있죠. 그런 상담과정은 고통스럽게 살아오신 분들이 스스로를 치유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고통을 이겨내면서 나오는 미세한 힘들을 자각하게 되거든요.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들을 자각하면서 자부심도 생기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세심하게

조명되면 상처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술집이 갖는 의미도 바로 그런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광주, 여성’의 의미가 하나일 리가 없을 것이다. 서평을 쓰는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있다. 한 인간의 내부에서 나오는 미세한 힘들을 기록하는 것, 이것도 이 책의 의미 집합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한 인간의 고유함과 존엄함을 기록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 책이 일깨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아카이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며 생각해볼 것도 이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그가 개별적인 한 인간이라면 국가와 대등한 존재이다. 인간이라는 고귀한 추상성, 국민이라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대등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가 개별적 존재로 고유한 인격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대등함이 성립되지 않을까. 잘 알다시피 근대국가 형법체계의 기본 전제는 국가와 개인은 대등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기록해 보존서고를 채우는 사명만큼, 한 인간의 생애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경중을 가릴 수 없다. ‘광주, 여성’은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기록했다. 그러자 그 사람마다 살아온 시간에서 나오는 힘을 마주할 수 있었다. 기록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